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2년 7월 16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15.(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7. 15.(금)	담당부서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과장	권혜진 과장(044-203-4330)	담 당 자	여수항 사무관(044-203-4332) 홍길표 사무관(044-203-4334)

산업부 1차관, 조선업 인력수급,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조선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출범식에서 친환경 기술개발의 중요성 강조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15일(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간담회는 **최근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 】

- **일시/장소 :** '22.7.15(금), 14:00~15:00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참석 :** (**산업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업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선조선, 에이치제이(HJ)중공업, 조선협회
- **내용 :** ①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②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③ 조선업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윤유진 / 홍보담당관 / 2022-07-27 10:17:11

○ 장영진 차관은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실적 개선**이 **생산(선박건조)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방안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아울러, 최근 가속화되는 **조선산업의 친환경·지능화(스마트화)**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장영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며, **환경규제 강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친환경·스마트 선박 연구개발(R&D) 등 전문기술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 이번 방문의 목적을 "조선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업계는 E-7(기능인력), E-9(단순노무인력)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정[illegible]** 및 주52시간제 등 **제도개선 필요 등**을 건의하였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이에 대하여 장영진 차관은 "그간 산업부가 **현장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22.4月)*, **생산인력양성사업 확대**** 등을 추진했음"을 설명하고, **"먼저 현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E-7 비자內 직종별 쿼터제 개선(용접공(총 600명), 도장공(年 300명, 2년) →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용접공 선발절차 개선, ▲유학생특례제도 활성화 등

** [예산] '21년 본예산(125억원) 및 추경(37억원) [지원] 교육훈련비(인당 40만원*2월) 및 취업수당(인당 60만원*2월) 지급 [성과] 3,269명 교육, 2,003명 취업

- 특히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업체, 현지 송출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에 따라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유진 / 홍보담당관 / 2022-07-27 10:17:11

- 또한, “추가적인 비자제도 개선사항, **주52시간제도** 관련 건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선산업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 사업단 출범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5일 오후 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은 국제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자재들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양 부처가 **10년 동안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 50% 감축 목표(‘23년 목표상향 예정)

【 사업개요 】

- **사업명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 **사업기간 및 규모 :** 2022~2031(10년), 총사업비 2,540억원 (국비 1,873억원)
- **추진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동추진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내용 :** 국제해사기구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형 친환경 선박 및 구성시스템들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확보

□ 친환경 선박은 **선박 엔진의 연료 전환**(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지·배터리 등 **전기추진 및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윤유진 / 홍보담당관 / 2022-07-27 10:17:11

<친환경선박 현재와 미래>



□ 동 사업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과 미래선박 시장에서의 신기술 선도를 위하여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추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실증 및 국제 표준화**(ISO)와 **IMO 의제 개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여 우리나라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비전 및 목표>



○ 통합사업단은 **개발 분야**(산업통상자원부 지원)와 **실증 분야**(해양수산부 지원)로 구성되며 개발 분야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실증 분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유진 / 홍보담당관 / 2022-07-27 10:17:11

○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속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내 기술 개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적용하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을 주도**하는 조선강국 위상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또한, 통합사업단이 우리 조선산업의 **질적 성장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제품들의 개발 및 실증과 조속한 상용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도 요청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홍길표 사무관(☎ 044-203-4332, 433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진 / 홍보담당관 / 2022-07-27 10:17:11

참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유해물질 배출 규제(Tier III), IMO 2020 등 온실가스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세계 각 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기조와 해운·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은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 중

- 국내에서는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20.1.1시행)'에 따라 IMO 온실가스 감축 등 개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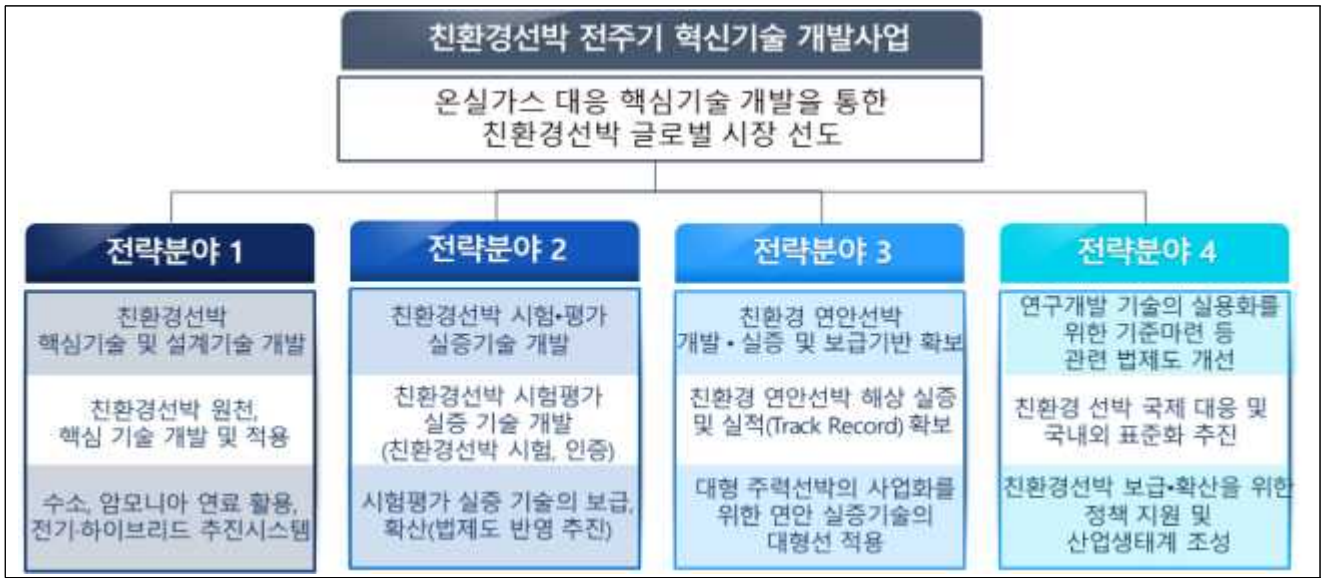
2 **(기간/예산)** '22~'31년(10년)/2,540억원(정부 1,873억원, 민간 667억원)

3 **(총괄 연구기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산업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수부)

4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등(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개발내용)** 조선·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부와 해수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①핵심·설계기술, ②시험평가·실증기술, ③해상실증, ④ 표준화 및 제도 개선 등 4대 전략분야 개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윤유진 / 홍보담당관 / 2022-07-27 10:17:11